



‘붉은 물결’ 과 대학의 제도



박 용 수
강원대 총장

예기치 못했던 ‘붉은 물결’ 이 학자들의 마음도 훑쳤는지 벌써 몇몇 연구 기관들과 단체들에서는 6월의 거리를 가득 메웠던 응원 열기에 대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사태가 진행되는 와중을 멀리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것의 전모를 살살이 알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런 분석들은 설익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 미네르바의 부영이는 저녁이 되어야 날아오른다고 하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경험과 현실을 학문적으로 해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며, 지식의 생산을 임무로 하고 있는 대학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지원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틀과 관행은 이러한 새로운 현실들을 탐구하는 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현실은 특정의 분과학문적 지식만으로는 적절히 탐구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학문적·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붉은 물결’ 의 연구를 위해서는 아마도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문화학, 언론학, 역사학, 미학, 정치학 등의 지식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학 현실에서 이들 분과학문들을 망라하여 연구를 조직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에서는 분과학문들 사이의 장벽을 벗어나거나 뛰어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근래 중시되는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공학과 농학 그리고 자연과학 등의 분야의 교수들을 ‘헤쳐 모으는’ 제도 개편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극히 일부의 교수들만이 참여한 또 하나의 ‘학과’ 를 만드는 데 그쳤으며, 오히려 그 학과와 기존 학과들의 연구 영역이 중첩됨으로써 위상과 편제마저 어정쩡하게 되었다. 더 다양한 학문 분과들의 많은 교수들이 결합하였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컸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기존의

학과 및 단과대학 제도가 가진 힘과 관행 그리고 심층적으로는 교수들 사이의 인간 관계는 이런 기대의 실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뇌 한국 21 사업에 의해 추진된 일부 과학기술 분야들의 '학부제'는 분과학문의 틀을 넘어서는데 성공한 것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학부들의 대다수는 화학적 융합이 아니라 물리적 결합에 그쳐 '학과들의 연합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필자는 듣고 있다.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에 의해 이끌린 경우에도 상황이 이렇진대, 모집 단위 광역화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부제의 실상은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이 진술은 교육부의 무차별적인 학부제 강요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두 학과를 한 학부로 묶는 일조차도 우리의 대학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흔히 해당 분야의 구성원들은 학과의 전문성, 그리고 역사와 전통 등을 내세워 '통합'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내친 김에 말하자면, 이 때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강조는 학과를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를 뒤에 숨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학과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다 보니 대학 2~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원 수준에서나 적합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대학 밖의 고정 관념과 관행도 대학의 제도 개편에 우호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었던,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대한 책도 펴낸 일이 있는 문학 연구자가 컴퓨터 게임을 연구하겠다고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문학 분야의 지원 기관에서는 이것은 문학 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통신 분야의 지원 기관에서는 이 사람은 정보통신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비 지원을 거절하였다. 분과학문의 틀에 갇힌 고정 관념이 새로운 현실에 대한 연구를 가로막는 셈이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이 인류학 전공자가 아닌 경영학 전공자를 선호하는 관행 등도 마찬가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안팎의 요인들 때문에 현실은 21세기의 저 앞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현실을 탐구해야 할 우리의 대학은 20세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현실들이 해명을 요청할 때 적절한 지식을 생산하여 그것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대학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채 중세의 '공룡'처럼 화석화될 것이다. 물론 대학의 기존의 제도적 틀과 관행 모두가 새로운 현실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 개편이 일률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진작시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현실의 변화에 맞춰 연구와 교육 역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조합하는 일은 대학이 그 임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6월의 '붉은 물결'은 어쩌면 잠깐 동안의 협동 작업을 통해 연구될 수도 있는 현상이므로 그것으로부터 '제도 개편'을 연상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붉은 물결에서 우리 사회를 갈라 놓는 여러 장벽들의 해소 가능성을 읽어 내는 견해들도 있거니와,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도 '붉은 물결'의 용광로 속에서 기존의 분과학문의 틀과 관행을 용해시키고 새로운 대학 제도들을 주조해 내기를 소망해 본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연고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붉은 물결을 촉발한 히딩크 감독의 또 하나의 소중한 기여라고 하지 않는가. **박원**